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대행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42호 현대불교
2007년 8월 22일(음력 7월 10일) 수요일 / 불기 2551년
법공양 페이지

21

크고 밝은 마음의 불을 밝히세요!

꿈에 조상님이 자주 보여요

문 조상이나 가족, 친구가 세상을 떠났을 때 경을 잃어 그들을 천도하는 영가 천도와 백종과 같은 의식이 과연 효과가 있습니까? 요 근래에 조상님들이 자주 꿈에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곧 아버님의 기제사인데 어떠한 마음으로 지내야 하는지요? 형제간에 사이가 좋지 않아서 차남인 제가 제사를 지내야 하거든요.

답 그래서 이 마음공부로 이끌어 드리는 거죠. 우리가 모른다면, 캄캄하다면 공동묘지에서 시체를 꺼내도 문제가 되고요. 갖다 넣어도 문제가 되고, 가도 와도 전부 걸려요. 또 도와줄 수도 없고요. 나도 도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남을 도와줄까요? 그러니까 '나부터 알아. 나부터 안다면 전부 가설이 돼 있어서 봉하니깐 전부 건질 수가 있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공부 하신 분들에게 한해서 때로는 꿈에 조상이 보이고 생시에도 조상이 있고 이런 것을 그냥 아시죠. 그리고 너무 극성스럽다. 서로 너무 싸운다 이럴 때도 거기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모든 게 틀어 아닌 주인공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다 내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은가.' 하고 모든 걸 놓으면 아주 마음이 태평하게 되고 모두 좋아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런 거 하나뿐이 아니라 좋은 데로 가게 하고, 오래 살게 하고 병이 없게 하고, 가난을 벗어나게 하는 것도 전부 천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와줄 수가 없습니까? 전부 자기와 틀어 아닌데 어떻게 벗어날 길이 없습니까?

지금 이 밤에 전구가 여러 개죠? 그런데 스위치를 하나 올리니까 불이 다 들어오죠? 또 요거를 몇 개만 켜 수도 있고요. 이런 자유자재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자유자재권을 가졌어요. 그것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지수화풍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광력·전력·자력·통신력이 총만해서 자유자재하게 끌어 쓸 수가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음으로서 그 여건을 자재하게 끌어 쓸 수 있으니 마음놓아입니다. 마음으로서 하는 거니 마음으로서 해결을 하라 이거죠.

신도님들 입장에서 보면 조상들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또는 부모나 조상을 위해서 백중날 절에 가서 불을 밝혀야 자신들도 잘된다더라 하는 생각으로써 천도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모든 걸 거기다가 맡겨 놓고서 부모의 천도

를 할 때, 일체제불의 마음과 그 조상님들이 자식을 위하는 마음, 그 마음과 마음이 한데 합쳐집니다. 합쳐짐으로써 크고 밝은 마음의 불이 되니까 조상님들이 이렇게, 아주 큰 밝은 불을 보고는 '아이구, 내가 여기서 추웠는데 저기 크고 밝은 불이 있으니까, 그러고 가서 따뜻하고 밝게 살아야겠다.' 하고 그러고 갔을 때에 그게 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여기서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끄달리다가 돌아가시면 그 차원의 그릇밖엔 안 됩니다. 사발이다 종지다, 이렇게 천차

가 그 씨요 그 씨가 그 씨니까, 바뀌진 거뿐이니까, 아이, 그거 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위의 묵은 빛을 갈을 수 있고, 햇빛도 또 줄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저렇게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 이렇게 잘 하는 걸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고려장 지낼 때 지게 도로 지고 가니까, '왜 가지고 가느냐.'고 하니깐, '아버지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했더니깐. 그래서 거기서 고만 자기 어머니를 도로 업고 가더라는 셈으로 말입니다. 이거는 은연중에 그 자식들이

내 탓이야!' 하면서 회개를 할 수가 있죠. 형님뿐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서도 여러분이 의절을 하고 안 다니는 집들도 있죠? 그런 일이 없도록, 남자나 여자나 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살면 열마나 산다고, 이 모습들을 가지고 열마나 산다고 그렇게 모두 등이 져야 하고 원망을 해야 하고 그 중요요 해야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종교를 진실히 믿는다면 어디 국한돼 있는 것이 종교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림하고 살아나가는 이 진리가 그대로, 이 세상이 그대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서 충성이 이리저리 흐르지 않도록, 초 심지를 다스리면서 잘 해 보십시오.

윤회와 무아야 무슨인가?

문 윤회 전 기독교 관련 신문에서 "불교의 윤회설과 무아설이 양립될 수 있는가?"라는 제하의 칼럼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윤회사상과 제법무아 사상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불교의 모순인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 정말 그것이 불법의 허점인가요?

답 평상시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 만행(萬行)입니다. 그대로 만행입니다. 만행이 따로 있어서 만행이 아니라, 그대로 만행입니다. 끝없이 이어 가는 그 행이, 고정됨이 없이 행하는 그 생활이 곧 만행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와서 만행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육도만행(六道萬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만행이 있기 때문에 육도윤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육도윤회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육도윤회에 매이지 말라. 끄달리지 말라.'고 가르침을 주신 거죠. '꿇어라' 그러신 게 아니라 '매이지 말라. 보는 것도 듣는 것도 고정됨이 없어서 발 하나하나 디터 놓는 것도 바로 윤회거를 여지 한 발짝 때어 놓고 또 한 발짝 때어 놓는다고 해서 거기에 치우쳐서 끄달리고 매이느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다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윤회에 매이지 말라.' 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가 차를 한 잔 주는데 뜨거웠어요. 그런데 이거를 빨리 식으라고 젓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다." 즉 "네가, 차를 데워 먹고 뜨겁잖아 식혀 먹어라. 이게 진법(眞法)이다." 이런 거와 같이 우리가 항상 육도만행을 하면서 육도윤회를 합니다.

그런데 윤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생사에 의해서만이 윤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나

잘나 돌아가는 것이 윤회입니다. 화(化)해서 나투면서 잘나잘나 변화되면서 돌아가는 이 만행이 즉 윤회입니다. 윤회인 까닭에 그 윤회에 매이지 말라고 한 겁니다. 재차 얘기하지만 '매이지 말라. 끄달리지 말라. 그대로 볼 수 있고 그대로 들을 수 있다면 그대로 여여하라. 그대로 접프해서 넘어가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도윤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생활하면서 고정됨이 없이 공(空)했다고 하는 자체가 바로 그것이니 매이지 말고 끄달리지 마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다 공했느니라. 너를 세울 것도 없고 나를 세울 것도 없고, 나를 꼬집어서 내세워서 나라고 할 게 없느니라. 안과 밖이 다 그러니라. 안에도 내 집안의 모든 생명체의 의식들이 내가, 그러니까 사람 속엔 사람이 들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 들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런데 어떠한 것을 꼬집어서 나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공하고 없다. 내세울 게 없다. 없다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어떤 걸 세울 게 없다. 세울 게 없는데 무엇이 매이고 무엇이 끄달릴 게 있느냐? 그러니까 윤회라는 이름조차도 없느니라. 살면서 모두 그 이름을 지어 놓지 않는다면 질서를 문란케 하고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 놓고 부르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제법이라 하면 일체를 말하고, 이 무아라고 한다면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없는 게 가운데 나와, 자(自我)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없어도 아니 되고 저게 없어도 아니 되고 그냥 딱 차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무아라고 한 것이지, 이러한 무아가 없다면 윤회가 어디 있으며, 윤회가 없다면 이러한 무아가 어딴습니까? 눈이 없는 데 귀가 어딴고 귀가 없는데 눈이 어딴겠습니까? 생명이 없으면 육신이 보이지 않아서 무효고, 육체가 없어도 보이지 않으니깐 무효고, 또는 생각을 해내지 못해도 목석이니깐 무효야. 다 갖추어서 생강생김이 잘생기고 잘 할 수 있는 똑바른 사람이라야 그걸 제법의 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뜻이 그렇단 얘깁니다. 그래서 세상 뜻이 모두가 공해서 잘나잘나 나투면서 화해서 돌아가는 경지이기 때문에 제법무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없어서 무아가 아니라, 우리 몸통이 속에 너무 많아서 어떤 걸 내세워서 나라고 할 수 없고, 내가 먹었다고 할 수 없고, 내가 살림살이를 지금 하고 간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

22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만별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한 그릇에 갖다 놓고 아주 밝게, 개미가 지나가는 것도 볼 수 있을 만큼의 밝음을 그대로 맞출 수 있고, 모든 게 나 아님이 없고, 내 먹을 거, 내 거 아닌 게 없으니 그렇게 해서 한 찰나에 천도가 되는 이런 예가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수박을 심어서 수박씨가 그 속에서 나왔는데, 이번에 그 수박씨를 또 심었어요. 그래서 또 수박이 열렸다고요. 그랬는데 작년 수박씨 다르고 올해 수박씨 다릅니까? 그러니까 그 부모한테 기제를 지낼 때는 그렇게 간소하게 그렇게 해도, 불을 켜 놓고... 그 마음의 불을 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놓고선 음식을 조금, 식구들이 잘 먹는 걸 사다가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하면, 그 씨

그냥 본밭이 돼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체가 없어 이 털구멍을 통해서 그냥 수없이 나갔다 수없이 들고 그림니다. 이거 모르시죠? 약하게 마음을 갖고 누구를, 예를 들어서 밀게 생각을 한다. 증오한다 이러면 벌써 이게 마음이 말입니다. 털구멍을 통해서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더 증오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털구멍을 통해서 나고 들면서 '잠, 틀어 아닌데 너도 틀어 아니게 여기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 하고 거기다 놓을 때는 바로 거기도 밝게 불이 들어와서 '아, 모든 게 잘못된 것도 내 잘못이구나!' 하고서 후회를 하면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면서 이렇게 잘 돌아가면서 나중에는 '아이구 형님, 내가 잘못했어! 모든 게

보은사 울산포교원 통명정사 기초의식 및 범음 범대 교육생 모집

불교의식을 기초과정부터 전문과정까지 체계적으로 배우실분을 모집합니다.
교육생은 부처님을 모시고 계시는 분, 스님, 법사, 보살님, 일반인 누구도 가능합니다.
모든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기초과정 (3개월) 도량식·종성·조석예불·사시불공·각단예불 및 불공 (매주 월·토요일 오후 2시~5시)

전문과정 (1년) 천도재(49재)·점안의식·구병의식·작법 <나비춤, 바라춤, 도량계, 다계, 요집바라, 사다라니 바라> 사물다루는 법

기초과정을 이수한 분에 한함
◆개강일 : 2007. 9. 3(월요일 오후 2시)

■ 구비서류 : 수강신청서 1부, 사진 2매

■ 문의전화 :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 2동 618-14(울산대학교 정문 맞은편)
052)247-8883, 238-8819, 010-4554-1412

보은사 울산 교육원 통명정사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지사안내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광고계약·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활 동 지 역	지 사 장 명	연 락 처
부산지사	부산일원	오 세 룡	051)632-0064 / 011-847-1211
대구지사	대구일원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대전 충북지사	대전 / 충북	해철스님	043)732-5560 / 011-9422-8453
경남 동부지사	밀양 / 창령 / 의령	해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경남서부일원	영민스님	055)355-7472 / 011-9312-2228
영주지국	영주 / 문경 / 봉화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울산지사	울산 / 경주	서 병 수	052)272-0909 / 011-862-5282
경남 남부지국	경남남부일원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